

# 한국인을 위한 간호선교사 엘리자베스 쉐핑(Elizabeth J. Shepping, R. N.)의 교육과 전인적 간호

윤 매 옥

한일장신대학교 간호학과

## Nursing Missionary Elizabeth J. Shepping's Education and Holistic Care for Koreans

Yoon, Me Ok

Department of Nursing, Hanil University ·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Wanju, Korea

**Purpose:** This study was to present education and holistic care of Elizabeth J. Shepping (1880~1934), a nursing missionary and a founder of the Chosun Nursing Association who visited Korea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Methods:** Primary and secondary sources were collected and analyzed. **Results:** This study provides important implications regarding Shepping's holistic nursing as follows: First, she came to Korea after studying nursing and bibliography and being trained for nursing missionary works. Second, she cared for many Koreans, especially Korean women, to protect them from poverty, oppression, ignorance, and illnesses. Third, she continued to spread holistic care in hospitals and other local communities. She trained nurses, developed nursing education, and produced a large number of domestic nursing leaders by establishing women's Bible school. Fourth, she founded the Chosun Nursing Association, serving as its first president for 10 years and applied to join the International Council of Nurses (ICN). **Conclusion:** Finally, suggestions were provided for future research, and it will be necessary to study thoroughly nursing achievements by nurses from other countries who practiced their nursing activities in Korea, and such studies are expected to lead to analysis of nursing missionaries' experiences.

**Key Words:** Nursing, Missionary, Education

##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현재 한국 간호는 간호교육과 실무에서 세계 간호수준으로 발전해 왔으며, 이렇게 발전하는 데에는 처음 시작한 외국 선교사들의 기여와 한국간호사들의 노력에 의한 것이라고 본다. 구한말·일제강점기를 거치는 한국민족의 험난한 역사 속에서 간

호이념을 실천해 온 서양간호선교사들의 헌신적 노력과 초기 한국 간호사들의 노고가 있었기 때문이다[1]. 한국 간호가 시작된 1900년 초 한국의 사회를 볼 때 특별한 계층외의 여성은 바깥출입도 자유자재로 하지 못하고 여성들에 대한 교육의 기회가 봉쇄되어 있어서 정규교육을 받은 여성과 직업여성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았으며 대부분의 여자들이 한글해독마저 못하는 형편이었기 때문에[2] 한국사회 자체가 여성이 주도적인 간호교육을 시작하는 것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하지만 한국에 간호교육

**주요어:** 간호, 선교, 교육

**Corresponding author:** Yoon, Me Ok

Department of Nursing, Hanil University ·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726-15 Waemok-ro, Sangkwon-Myun, Wanju 55359, Korea.

Tel: +82-63-230-5621, Fax: +82-63-230-5557, E-mail: yoonhospice@hanmail.net

Received: Oct 30, 2015 / Revised: Mar 17, 2016 / Accepted: Mar 23, 2016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을 시작하였고 여성의 참여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한국여성의 지위를 높이는데 공헌한 외국간호선교사들로 인하여 한국의 간호는 오늘날 세계 속의 간호로 우뚝 서게 된 것이다.

이처럼 초기 한국간호는 서양간호선교사들이 입국 한 1890년대 말에 병원중심으로 시작하였으며, 간호교육은 서양간호선교사에 의해 1903년 보구여관에서 설립된 선교계 간호원양성학교로 간호가 체계화되기도 전에, 한일합방(1910년) 이후 일제에 의해 '간호부'라는 명칭으로 관립 의료기관 간호부양성소에서 배출되기 시작하였다[1]. 그 후 한국간호는 선교계의 도움으로 점차 기초를 다질 수 있었으며[3], 100여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 많은 변화와 발전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므로 1세기가 지나가는 우리나라 간호역사에서 한국인을 위한 헌신과 전인적 돌봄의 이념을 실천하면서 한국간호의 발전에 위대한 족적을 남겨주었던 간호선교사의 간호와 교육업적에 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한국에 파송된 서양간호사의 생애를 통한 심층적인 간호활동에 대해서는 다루어지지 않았다. 지금까지 내한간호선교사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간호학 분야에서는 일제시대 선교회의 보건사업에 관한 연구[4]와, 연세대학교 간호대학의 기틀을 다진 외국선교사들에 관한 연구[5], 초기 개신교 간호와 간호교육의 정체성으로 1903년 설립된 보구여관 간호원양성학교와 에드먼즈를 중심으로 한 연구[6], 그리고 한말·일제강점기 내한한 개신교의 간호선교사의 사역연구[3]가 수행되었다. 그리고 신학분야에서는 간호선교의 역사연구[7]와 일부 간호선교 인물에 대한 연구[8-13]가 이루어졌다.

20세기 초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로 비참한 역사의 소용돌이가운데 처해 있을 때 32세에 이국 만리 한국 땅에 와서 22년 동안 생의 가장 소중한 부분을 오직 그리스도의 바깥정신으로 한국인에게 사랑의 돌봄을 아낌없이 실천하면서 생명을 바치기까지 헌신한 후 시신마저 연구자료로 회사하고 간 간호선교사 엘리자베스 쉐핑(Elizabeth J. Shepping, R. N. 한국명: 서서평, 1880~1934)이 있다[2]. 지금까지 한국간호에서 감추어진 그의 모습을 드러내고 잊혀진 과거 식민지의 한국 간호를 되돌아보면서 전인간호의 시각으로 나아가기 위한 새로운 각오를 가져야 할 때라고 여겨진다.

지나온 한국간호에서 쉐핑의 간호선교사역은 국가와 민족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사랑과 헌신 그리고 봉사를 한 몸으로 보여준 한국 간호역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유일한 인물이라고 생각된다. 인간 사랑을 기초로 한 간호철학을 가지고 가난한자와 병든 자, 고아와 과부를 극진히 보살폈고 여성학교를 설립하여 육영, 육아사업에 힘썼으며, 부인 조력회와 금주동맹 조직 및 운동, 윤락여성과 빈민구제 사업에 전력을 다하였다[14].

특히 우리나라 개화기에 천시 당하던 여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해 교회에 나올 수 있게 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여권신장에 기여한 인물로 당시 누구도 쉐핑을 능가할 자가 없는 한국여성운동의 개척자이며 사랑의 사도이다[15]. 특히 1917년 세브란스 간호원 양성학교 재직을 시작으로 간호교육의 체계화를 이루었으며 간호학교과서들을 번역 집필하였고[16], 1923년에 대한간호협회 전신이었던 조선간호부회를 창립하여 10년 동안 회장을 역임하면서 조선간호부회를 세계적 수준으로 올리고자 ICN에 준회원으로 가입시키는[11] 등 한국 간호학의 초석이 되었다.

지금까지의 쉐핑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신학[8-11], 사회복지학[12], 기독교 교육학적 측면[13]에서 선교활동을 파악한 연구가 수행되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복음의 통전적 선교활동[8,9]으로 쉐핑을 이해하는데 매우 고무적이라 볼 수 있겠다. 그러나 전문인 간호선교사로서 간호학적 측면의 선구자적 전인간호와 간호교육에 대한 심층적 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다. 일제강점기의 험난한 우리나라 간호역사를 되돌아볼 때 인간의 생명존중 의식과 함께 전인적 돌봄을 실천적 교훈으로 남긴 본 연구는 간호현장에 있는 간호사와 간호학을 배우는 대학생에게 간호사의 정체성 확립과 전인간호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이끄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한 세기 전 이 땅에 와서 한국간호에 씨앗을 뿌리고 간 쉐핑의 고귀한 업적을 기리는 마음으로 한국간호의 초기 역사를 돌아보면서 미래 간호의 길을 조망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의 간호실무와 교육에 헌신한 간호선교사 쉐핑의 생애와 그의 간호활동에 대한 역사적 행적을 드러내고, 인간 사랑을 바탕으로 한 전인적 간호를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시각을 모색하고자 시도하였다.

## 연구 방법

###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일제강점기 동안 내한한 간호선교사 엘리자베스 쉐핑(Elizabeth J. Shepping, R. N. 한국명: 서서평, 1880~1934)의 생애를 통한 간호활동과 교육에 관한 주요업적을 탐구하기 위한 역사적 접근연구(historical method)이다.

### 2. 자료수집 도구 및 방법

본 연구는 쉐핑이 자신의 활동을 기록하여 미국 선교부로

보고한 연례보고서와 편지 및 기고문의 일부와 Baek[2], Yang[17], Yang[18], 그리고 So[19]의 저서에서 정리된 이일학교의 초기 역사를 배경으로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상의 일차자료를 통하여 쉘핑의 출생과 성장과정, 교육배경, 일제시대 간호선교사로서의 활동, 간호행정, 간호전문직단체, 그리고 교육 분야 등 각 영역에서 지도자로서의 활동을 고찰하고 재구성할 수 있었다. 재구성된 쉘핑의 행적에 대한 분석은 일제시대 우리나라 여성교육, 간호실무, 간호인물, 간호학의 변천 등에 관한 관련 문헌과 기존연구를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주요 이차자료로는 한국간호역사자료집 I [20], 한국간호 100년[1], 간호의 역사[21] 등이 사용되었다.

## 연구결과

### 1. 내한 이전 쉘핑의 생애(1880~1912)

#### 1) 출생에서 어린 시절:(1880~1889, 1~9세)

쉘핑은 1880년 9월 26일 독일 비스바덴에서 태어났다[16]. 그의 이름은 '엘리제(엘리스) 요한나 쉘핑(Elise Johanna Sheping)'이며, 엘리제라는 독일식 이름은 조선에 와서도 자주 사용되었다. 한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홀로된 어머니마저 쉘핑을 할머니에게 맡기고 미국으로 떠남으로 어머니와의 품속에서 사랑의 결속이 맺어지기 전에 할머니의 양육을 받으며 외로운 삶을 경험하였다.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던 할머니는 쉘핑을 로마가톨릭 교구학교(parochial school)에 입학시켜 주었다. 그러나 어머니 역할을 해왔던 할머니마저 세상을 떠나게 되어 또 다시 상실을 경험하였고, 헤어진 어머니를 찾기 위해 미국으로 향했다. 아홉 살 나이에 이역만리 타국에 있는 어머니를 찾아가게 되었고 낯선 땅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불행의 연속이 반복되었던[22] 쉘핑의 가난한 시기와 가족과의 이별과 상실의 시기였다.

#### 2) 학동기에서 사춘기 시절:(1889~1899, 9~19세)

쉘핑은 고아이자 거지로서 8년 동안 헤어진 어머니를 찾기 위해 독일 땅을 떠나 영국 해협을 거쳐 미국 땅 엘리스 섬에 도착하였다. 1889년 어머니를 재회한 후 독일 이민자로서 미국에서 살아가면서 19살 되던 1899년 뉴욕에서 가톨릭 배경의 고등학교를 졸업하였다. 초등학교는 독일에서, 중고등학교는 뉴욕에서 마쳤고 같은 해에 미국 시민권을 받게 됐다. 그리고 뉴욕에 있는 성 마가병원 간호학교(St. Mark's Hospital Training School for Nurses)에서 교육을 받았으며[8,17,18], 이 시기는

쉘핑이 어머니와의 재회, 다문화 사회의 적응시기라고 본다.

#### 3) 청년기 시절:(1899~1912, 19~32세)

어머니로부터 내쫓김을 당한 후 조선으로 오기 전까지의 시기이다. 쉘핑은 1899년부터 뉴욕에 있는 성 마가병원 간호학교(St. Mark's Hospital Training School for Nurses)에서 간호사교육을 받았으며 1901년에 졸업하였다[2,8,17,18]. 성 마가병원 간호학교는 당시 뉴욕시립병원으로, 그곳에서 쉘핑은 구제사역에 활발하게 활동하였으며[8], 그녀의 가난한 자를 위한 돌봄 사역은 그 당시 그녀의 간호사 훈련을 통해 다져졌음을 알 수 있다. 졸업 후 동료간호사의 권유로 개신교회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그곳 집회에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복음주의적 확신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로마교회를 떠나 기독교로 개종하였다. 서평의 개종은 가톨릭신자였던 어머니에게는 충격이었으며, 딸에 대한 실망감과 분노감에 가득 차 집밖으로 끌어다 내치고 대문을 걸어 잠가버렸다. 1903년 미국에 온지 14년 만에 어머니로부터 버림을 당하게 되었다[18].

바로 그날 나의 어머니는 나와 의절하였습니다. 내 면전에서 우리 집 문을 닫아버리셨어요[16].

이 사건은 어머니와의 재결합 후 예수의 복음을 만나 개종의 결단을 내리게 되었고 그 이유로 어머니와의 의절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1904년 24세에 뉴욕에 있는 성서교사훈련학교(Bible Teacher's Training School)에 입학하여 그의 나이 31세인 1911년에 졸업하였다[8]. 쉘핑이 8년간 신학교에 머문 것은 야간에 간호사 일과 주간에 학업을 병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쉘핑은 어머니로부터 버림을 받아 상처받은 마음이지만 이러한 경험은 집 없는 자나 질병으로 고통 받는 자, 버려진 자들을 사랑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간호사 훈련과정에서부터 한국에 오기 전 1911년까지 뉴욕시의 유대인 결핵요양소(Jewish Sanatorium)와 이탈리아 이민자 수용소에서 일 하였다. 간호학교를 졸업 후 뉴욕시에 있는 주이시병원(The Jewish Hospital)에서 일하게 되었고 1908년까지 야간 수간호사로 일했는데[16], 이는 사회의 약자에 대한 연민과 함께 실천하려는 용기를 가지고 간호한 경험이 한국민족을 위한 그녀의 헌신적 삶에 밑거름이 되었을 것으로 보여진다. 쉘핑은 이러한 철저한 학교교육과 간호훈련을 통해 선교에 대한 강한 열망을 가지게 되었으며, 어느 날 한 친구로부터 '한국의 병원에 훈련된 간호사가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을 때 자신이 헌신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조선의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하였다[22]. 그리고 선교

사로 자원을 하여 여러 명의 지원자 중에서 합격의 기쁨을 얻게 되었고, 1912년 2월 13일 한국 의료선교사 임명을 받아 일생을 하나님 사업에 헌신할 것을 굳게 서약하였으며, 한민족을 위해 일생을 바칠 결심을 하고 1912년 2월 20일에 샌프란시스코를 떠나 한국으로 향했다[2]. 이 시기는 셰핑의 공허한 삶 가운데서 정체성을 찾는 인생의 대전환의 시기이다.

## 2. 내한 이후 셰핑의 생애(1912~1934, 32~54세)

1912년 3월 20일 간호선교사로 한국에 도착하여 광주선교부에 소속되어 '서서핑'이라 이름을 지었고 한국말을 익혔다. 광주 제중병원, 군산 구암예수병원, 세브란스 병원 등에서 간호사로 일했으며 1915년경 스프루(sprue)라는 풍토병에 걸렸다. 1919년부터 광주 제중병원에서 일하던 중 1921년 다시 들어나게 되었지만 고통 중에서도 1922년 이일성경학교를 시작하여 조선을 위한 여성교육과 전인적 간호활동을 전개해 나갔다. 특히 일제강점기에 조국의 운명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하여 1923년 조선간호부회를 조직하여 국제간호협의회(ICN)에 가입시키고자 앞장섰다. 1934년 하나님 앞에 가기까지 시간과 열정과 마음과 영혼을 아껴 한국을 위해 살았으며[18], 이 시기는 셰핑의 희생과 섬김을 다한 전인적 돌봄의 생애이다.

### 1) 병원간호와 간호사 양성

셰핑은 간호선교사로 1912년 2월 20일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떠나 한국에 왔다. 1914년까지 광주에 소속되어 광주 제중원에서 환자를 간호하였으며 특별히 한센 환자들을 정성껏 돌보았는데, 길에서 여자 한센 환자나 거지들을 만나면 집에까지 데리고 와서 목욕시키고 밥을 먹여 자기의 옷을 입혀주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생 두벌 옷을 갖지 못하고 언제나 굶주린 사람에게 자기의 먹을 것을 나누어 주며 돌보았다[11]. 3년 동안 언어 공부와 간호사 훈련, 환자를 대상으로 전도하는 일, 지역여성들을 위한 복음 전도 및 주일학교 사역 등을 도왔다[17].

1914년 군산으로 이임되었고, 1917년까지 4년 동안 군산 구암예수병원에서 활동하면서 간호사 양성과 병원사역의 주업무 외에도 전도, 주일학교 사역 등 사역의 폭을 넓혀갔다. 그러나 건강상 병원간호업무를 지속하지 못하고 지역사회 의료구호사회구제 사업에 집중하게 되었다. 1915년에 남장로교 연례회의의 보고에 의하면, 부족한 간호인력 때문에 군산 지역에 간호사 양성학교(Training School for Nurse)설치에 대한 청원을 미국 남장로교 선교부에 요청하였으며 선교부로부터 다음과 같은 통보를 받았다.

서울에 이미 그와 같은 학교가 설치되어있고, 세브란스 병원과 연계해 유니언 훈련학교 설립계획이 있어 그곳(군산)에 간호학교를 별도로 세울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그러나 병원 직원의 효율을 높이고 간호사들이 졸업해서 병원을 나가지 않도록 하며..., 병원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는 것을 요청하며 간호사 양성을 위해 한 반을 운영하는 것은 허가한다[23].

셰핑은 독자적인 간호학교를 정식으로 세워 간호사를 양성하고자 했던 간절한 소망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다. 그 후 세브란스를 세브란스유니언 병원으로 개칭했고, 1917년에 남장로교 선교부에서는 셰핑을 세브란스에 파견하여 근무하도록 했다. 셰핑은 하루라도 빨리 간호사를 양성해야 한다는 일념을 가졌으며 그에 대한 꿈은 세브란스 간호사훈련학교에서 실행되었다. 1917년 9월부터 세브란스병원에서 간호사일 외에도 세브란스병원 간호학교 책임을 맡아서 간호사교육과 훈련을 맡았으며, 건강상의 문제로 아침부터 오후 1시까지 반나절 근무만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지만 대부분 저녁까지 병원에서 일하였다[8].

저는 여기 세브란스에서 일을 잘 하고 있습니다. 간호사 훈련을 담당하고 주당 14시간을 가르치며, 아침 7:30에서 오후 1시까지 병원을 열어둡니다. 병으로 몸 상태가 나빠져서 일을 반밖에 못 맡았지만, 통상 오후 9시까지 병원에서 쓰는 용품의 세탁과 바느질과 침대 시트를 준비하는 일을 합니다. 최근에 90명의 환자가 입원하였고 평균 150명 정도의 외래 환자가 있습니다[17 재인용].

셰핑은 군산 구암예수병원에서 사역하면서 간호사로 가르쳤던 이효경을 비롯한 여러 명의 제자를 세브란스로 불러서 정식면허간호사로 졸업시키고 한국간호계 지도자로 양성하였다. 후에 이효경은 조선간호부회 부회장으로 셰핑을 도왔으며, 이금전은 세브란스산파간호부양성소를 졸업하고 산파직과 육아사업에 종사하였고 조선간호부회에서 주요학술활동을 하였는데 셰핑은 이효경과 이금전을 1929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국제 간호협의회회의의 총회까지 동행하도록 했다[18]. 한국 지역사회 간호의 선구자로 활동한 이금전은 국제 간호협의회 참석을 마치고 토론토대학 공중위생학과에 입학하여 공부할 수 있었고, 공중위생과 모자보건의 독보적인 인물로 1959년 제 17회 나이팅게일 수상자가 되었는데[24], 셰핑은 이러한 차세대 리더양성에도 역점을 기울였음을 알 수 있었다.



지난 한 해 동안 조선 간호부회 회장으로서는 국제간호사 협의회(ICN)와 회원국 가입을 위한 교신담당자로서 중요한 서신을 나눴습니다.... 국제회의에서 발표하고 5개의 다른 언어로 인쇄될 조선의 일반적인 간호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제가 지난 기간 군산 간호사훈련 학교에서 가르친 졸업생을 데리고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리는 국제간호사협회에 조선대표로 참석할 수 있어서 매우 기쁩니다[18 재인용].

쉐핑은 세브란스 병원에서 일하면서 간호사 교육을 하였는데 일본총독부가 모든 교육을 일본어로 하도록 지시하였기 때문에 일본어 공부까지 해야만 했었다. 그의 일본어 공부는 1932년 조선간호부회 일로 일본을 방문했을 때 큰 효과를 발휘하였다[17]. 1918년에는 세브란스 유니언의과대학 간호사훈련 학교에서 네 명의 졸업생이 배출되었다. 1919년 1월에 발간된 Southern Presbyterian Mission Survey에 세브란스 관련 사진이 게재되었다(Figure 1). 아래 사진 왼쪽 뒤로부터 시작해 세브란스 의학 전문학교 교수이며 간호학생 교육에도 참여한 허스트(J. W. Hurst) 박사, 세브란스병원 간호부양성소를 창설한 세브란스의 천사로 통하는 에스더 실즈(Esther L. Shields),

가운데 쉐핑 간호사, 세브란스 의학 전문학교 교장 올리버 에비슨(Oliver R. Avison) 박사가 서 있고, 중간 줄에 졸업생인 함명숙, 오임철, 임광영, 김영실이 있다. 그리고 중앙에 간호부양성소 기숙사 사감이었던 캠벨(J. P. Campbell)이 앉아 학교 로고(SHINTS)가 새겨진 휘장을 들고 있다[17]. 연세간호를 태동시킨 외국선교사들에 대한 연구[5]에서는 쉐핑의 사진을 K. N. Esteb으로 잘못 표기하였고, 한국간호 100년 회집에서도 쉐핑을 다른 인물로 기술되어 있었는데, 이는 정확한 표기를 위해 재수정되어야 할 부분이다.

쉐핑은 1919년까지 세브란스에서 일하면서 간호사 양성에 주력하였으며, 1919년 3·1운동 때 독립운동을 하다가 부상당한 조선인들을 치료해 주었고, 형무소에 있는 독립 운동가들을 옥바라지 했던 그에게 일제는 기미독립운동에 관여했다는 오가미를 씌워 서울에 거주할 수 없게 하였다[2]. 게다가 스프루(sprue)가 발병되어 세브란스병원의 일과 간호학교에서 가르치는 사역을 그만두어야만 했다[22]. 그러나 그의 탁월한 언어 능력으로 일본어와 중국어까지 기초를 다지게 되었다. 당시 간호사양성소에서는 3년 3개월을 배운 후에 정식 면허 간호사가 될 수 있고 병리학이나 전문 의학 상식 및 영어와 일본어 교습이 필수 과목이었는데, 이는 훗날 이일학교에서 성경과목 외에



**Figure 1.** College graduates of nursing school in Severance hospital and from the left, a doctor Hurst, Shields, Shepping, Evison, Campbell a dormitory inspector who sat down with an emblem.

교양과 과학 및 의료 상식 등 다양한 수업을 한글과 일본어로 교육하는데 도움이 되었다[18].

조선간호부회 회장인 셰핑은 간호학 교과서(Practice Nursing, Historical Outlines Showing the Relation of Nursing History, Short History of Nursing)[23]를 번역, 출판하여 세브란스와 선교부 소속 병원과 학교에서 사용하도록 하였고, 그의 저서인 간호교과서, 실용간호학, 간호요강, 간이위생법 등을 썼다. 1932년 조선간호부회보에 기록된 조선간호부회 지정 출판도서로 22권을 선정했는데 그 중 4권이 셰핑의 저서로 가장 많았다[2].

## 2) 지역사회 방문보건간호와 사회적 돌봄

1920년 이후 세브란스병원을 떠나 광주로 내려온 셰핑은 건강의 문제로 요양하면서도 광주제중병원을 돌보았고, 광주와 목포에서 지역사회를 순회하면서 총체적간호사역을 하였다. 불모지와 같은 조선에서의 사회적 돌봄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인들은 전혀 다루지 않고 있음을 알고 방문간호와 공중위생 등에 힘을 쏟았으며, 사회적 돌봄 사역인 인신매매나 공창폐지운동에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다. 단지 신체적으로 아픈 환자를 치유하는 일 외에도 예방사역(preventive work)의 필요와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조선에서의 공중위생사역(sanitary work in Korea)라는 제목으로 선교지에 4가지 예방간호인 무의탁자 돌봄 간호, 극빈자와 병자 및 노인 돌봄, 모자 보건간호, 긴급구조사역을 보고하였다[18,19].

첫째, 병으로 쇠약하거나 친구나, 직업이나, 집이 없는 퇴원 환자들을 구제하는 것으로, 이것은 적절한 집을 찾아주고, 옷을 공급해 주고, 직업을 찾을 때까지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다. 둘째, 극빈한 병자와 노인을 돕는 것으로, 그들을 위한 적당한 방 혹은 치료될 때까지 병원 숙박을 찾아주거나, 매일 그들의 집에서 돌보아주는 것이다. 셋째, 모자를 위한 돌봄으로, 매일 가정을 방문하여 환자를 진료하고, 가정에서 교육하고 치료하며 건강을 회복하는 법을 가르치고, 산모에게 출생 시부터 육아 방법 교육 등이다. 넷째, 긴급 구조사역이다. 노예상태에서 학대받는 소녀들을 구출하여 폭력과 인신매매, 억압과 착취로부터 보호하고, 몸의 상처를 정성껏 치료 해주며, 기독교적 훈련을 통해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키고,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25].

길을 걷다가 유방을 드러낸 채 걷는 부인을 만나면 붙잡고 옷씌우 안으로 잘 가리도록 훈육하고, 남자(판머리)꼬리라도 너풀거리면 빗을 내어주며 빗질하게 하며, 속치마라도 내다보이면 치켜 입도록 하는 등 자신과는 아무 관련 없는 사람의 옷매

무새까지 관심을 가져 정도에서 어긋나거나 분수에 맞지 않은 행위는 기필코 바로 잡아주었다[2]. 즉 육신을 치유하고, 사회적 구제와 교육을 통해 건강하고 올바른 삶을 살도록 도왔으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온전한 인간이 되는 데까지 도왔다.

이 외에도 지역주민을 위한 공중보건위생 실천을 위한 교육, 금주, 금연운동, 윤락여성 선도 사업을 전개하였고[22], 전도사역과 함께 가정방문을 통하여 수백 명의 환자치료를 위한 간호 활동을 펼쳐나갔다[19]. 셰핑은 개인적 병원업무이외에 자신의 시간을 쪼개어 자발적이고 개인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당면한 실제적, 잠재적 문제에 주목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혼신의 노력을 다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 3) 한센 환자 간호

셰핑은 광주 제중원에 있는 동안 한센 환자들을 정성껏 돌보았다. 한센 환자들이 당하는 차별과 곤고함은 말로 표현할 길 없었으며 이들을 치료할 전문기관도 없었다. 제중원 밖에 벽돌 가마터를 임시치료소로 삼아 가마터에 구울 흙벽돌 대신 침구와 요가 들어오는 등 가마터가 한센 야전병원이 되었다. 몰려오는 한센 환자로 인해 가마터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게 되었고, 시민들의 반발도 심해져 시내에서 떨어진 새로운 터를 마련하였다. 1912년 영국 ‘극동과 인도구락회’의 지원으로 나환자를 위한 거주지(광주나병원)를 건축하고 한센 환자 치료가 시작되었다. 광주 제중원에 간호사로 부임했던 셰핑은 먼 산골짜기 봉선리 마을 나병원까지도 오가며 정성껏 그들을 보살폈다. 나병원에 입원하면 배고픔과 추위 걱정도 잊고 병을 치료할 수 있어서 한센 환자들에게는 애양원을 천국이라 말했고, 애양원 문을 천국문이라 했다. 그만큼 광주 제중원은 한센병자를 치료하는 중요한 임무를 맡았으며, 그 중심에는 간호사인 셰핑이 있었다[17]. 셰핑은 손과 발이 짓무른 상처로 통통 부어있고, 걸친 누더기 옷은 피와 고름으로 엉켜 웅크리고 있는 한센인을 위한 주거복지를 위한 구라사업을 전개하였다. 그는 제중병원에서 간호사로 많은 한센 환자를 정성을 다해 간호하였고, 길에서 여자 나병 환자나 거지들을 만나면 집에까지 데리고 와서 목욕을 시키고 밥을 먹여 자기의 옷을 나누어 입혔다[2].

한센병 환자병동을 방문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한센병 환자들에게 행해진 일들을 보았을 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는 70에서 78세 된 할머니 여섯 분을 모시고 있습니다. 네 분은 42마일 떨어진 곳에서 3일 길을 걸어오셨습니다. 날씨는 좋았는데, 아직도 조금 춥습니다만.... 우리 성경학교 건물에 “임시 직물 천장”을 만들었습니다.

거의 200명이 건물 바닥에서 잠을 잤습니다[17 재인용].

쉐핑은 광주에서 돌보던 한센 환자에 대한 관심은 군산 구암 예수병원으로 옮긴 후에도 계속되어 선교부에서는 군산에도 한센 환자를 돌볼 수 있게 별도의 병원을 짓기로 하였다. 그리고 고아 13명을 딸로 입양하였고, 한센 환자의 자녀를 아들로 입양하였으며, 그 당시 처녀선교사들에게 한센 환자 자녀들을 입양하도록 주선하는 헌신적인 모범을 보였다. 쉐핑의 뒤를 이어 동료선교사는 한센 환자의 자녀를 입양하였다[18]. 내 집과 내 자식만 잘되거나 배불리 먹이는 이기적인 삶에서 벗어나 주위의 상처받고 소외된 이들에 대한 섬김을 몸소 실천하며 가르쳐주었다. 1922년 당시 한국의 한센 환자 수는 12,000명 정도였으며, 그 중 1,000명 정도는 기독교 선교사로부터 치료를 받고 있었다[19]. 쉐핑은 1926년까지 한센 환자를 돌보았으며 그 이후 광주나병원의 한센 환자의 수용시설은 여수 애양원으로 이주되면서 남녀 32병동에 730명의 환자를 수용하였다. 그 후 봉선리에는 한센 환자 교회를 열고 환자들이 하루에 한 끼씩 굶어 모은 헌금으로 제주 추자도에 전도인을 파송하였다[18]. 1930년대의 선교보고에는 50여명의 의사와 간호사가 애양원에서 일하였고 병원과 교회가 세워졌다. 1933년 쉐핑은 최홍종 목사와 함께 광주에서 150여명의 한센 환자를 인솔하여 서울까지 11일 동안 걸어 올라갔는데, 이 소식을 들은 수많은 한센 환자들이 모여들어 일제총독부를 향해 대행진하는데 함께하며 헌신을 다하였다. 그들은 소록도 전체를 한센 환자를 위한 수용소로 만들고 치료와 문화시설, 재활을 통해 갱생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제안하였는데, 마침내 1939년 11월 소록도에 나 환자 갱생원 시설이 확장되고, 한센 환자들을 수용할 수 있게 되었다. 어느 추운겨울 한센 환자 두 사람이 길가에서 떨고 있는 모습을 본 쉐핑은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하나밖에 없는 담요를 반으로 잘라서 두 환자에게 각각 덮어주고 돌보아주었다[2]. 온 몸에 상처로 만신창이가 되어 고통받는 이들, 이 땅에서 소외받는 자들의 아픔을 자신의 일로 여기며 한센인들에 대한 쉐핑의 애정 어린 헌신과 섬김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십자가의 길로 여긴 것이다.

#### 4) 이일학교 설립과 전인교육

쉐핑은 여성 문맹이 많았고 경제권도 없었으며 여성들의 의식자체가 낮은 것을 알고서 여성들을 일깨워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여성이 권리의식을 가지고 사회적으로 직업을 가져야 함을 가르쳤고 일제강점기 여성계몽과 여성교육에 앞장섰다[17]. 빈곤 속에서 비참하게 말살된 여권을 신장시키기 위

해 여성교육의 시급함을 절감한 쉐핑은 학교설립을 결심했다. 1922년 6월에 광주 제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는 동안 전도부인(bible women)양성학교를 시작하였다. 부모의 반대나 가난하여 학교에 갈수 없고, 결혼 후 아이가 없어 학대 받는 여인들 등 불우하고 교육의 기회를 놓친 여인들을 위해 쉐핑의 좁은 침실에서 성경을 가르친 것이 이일학교의 시작[8]이라 할 수 있다.

현재까지 조선여인들은 자기 이름을 사용한 적이 없었으나, 이제부터는 자기 이름을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 과거 여인들의 이름은 한자로 출생 증명을 했고... 다시는 자기 이름을 들어보지 못했거나, ... ‘큰 년’, ‘작은 년’으로 불리웠습니다. 그녀는 60살이 넘었거나 아직도 그렇지만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라고 불리듯 특정하게 태어난 지역의 이름을 넣은 상태로 ‘어느 태생의 여인’으로 부릅니다. ... 이와같이 이름을 만들어 주는 일 혹은 이름을 다시 살려내는 일은 선거나 등기인 명부에 기재하는데 생기는 장애제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진전입니다. ... 이 일로 인해서 여인들은 처음으로 자기 정체성과 인격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17 재인용].

1926년 미국에 사는 친구 로이스 니일(Ms. Lois Neel)양이 후원한 기금으로 건물을 세워 그의 이름을 따서 이일(李一)학교라 칭하였는데[26] 이는 여성들의 문맹퇴치와 계몽을 위하여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3년제 사립학교였다. 초등학교 교과과정으로 보통과와 성경과를 두었다. 쉐핑은 이일학교를 설립하고 1934년 서거하기까지 교장으로 활동하였으며, 하루에 6시간씩 매주 대여섯 과목을 가르쳤고 일주일에 두 번 예배를 드렸다. 질병 예방 차원에서 건강과 가정위생, 아이와 모성의 영양 및 교육론, 상처치유법, 세균전염병 예방 등 의학 및 간호에 관련된 과목도 가르쳤다. 그러나 자신의 월급으로 운영하였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늘 부족하였지만, 가난한 학생에게 자립정신을 길러주기 위해 양잠과 직조기술을 길러 부족한 학비를 도왔다[17].

또한 쉐핑은 지역사회를 방문하면서 구제사역과 복음전도사역에도 전심을 다하였다. 그 당시 교통수단이 발달되지 않아 조랑말을 타고서 험한 산골짜기를 다니면서 헌신을 다했다.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여름동안 피서를 갔는데 쉐핑 만은 쉴 틈 없이 선교사들의 손이 미치지 못했던 제주도와 추자도 등을 방문하면서 질병의 치료와 구제 그리고 전도에 주력했다[26]. 그는 영문 전도지를 번역했고, 지역사회와 각 교회를 방문하여 부인



조력회를 만들고, 지도자를 세우는 일에도 힘썼다. 1922년 12월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부인조력회(여전도회)를 조직하여 성경교육과 여성인권 신장운동 등을 전개하였다. 또한 식사를 준비할 때마다 몸과 마음으로 돕는다는 의미로 식구 한 명당 한 숟가락씩 떠서 하나님께 바치는 제도를 만들었다. 교회에 바칠 현금이 없는 형편에 가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곡식을 드려서 어려운 이웃의 양식을 도울 수 있도록 성미(誠米)제도를 기독교 역사에 정착시킨 인물이다[17]. 그리고 이일학교 학생들은 금주운동과 절제운동을 위해 배너를 두르고, 술의 악독과 위험을 알리는 전단지들을 나누어주며 행락가를 행진하였다[19,22]. 셰핑은 광주 주변 20리 안팎 마을마다에 주일학교를 설립하여 아동교육을 시작하였다. 확장주일학교라 하여 주일학교가 없는 마을에 교사를 파송하여 아이들을 모아 가르치는 일로, 주일마다 트럭으로 교사들을 마을마다 실어다주고 주일학교가 마치면 실어오곤 했다. 이일학교 졸업생들은 전국에 흩어져 전도부인(지금의 전도사), 간호사, 선교사, 사회운동 등으로 활약하였다[2].

셰핑은 학교를 운영하는데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충당하였으며[26], 조선의 농촌여성과 같이 무명옷을 입으며 고무신을 신고 보리밥에 된장국을 먹고 살아왔다[17]. 또한 군산 구암에 수병원에 근무할 때 전주에 단기성경학교를 개설하였다.

##### 5) 조선간호부회 창립 및 활동

1908년 서양인 선교간호부회 모임으로 결성된 재선 졸업간호부회는 일본인 졸업간호부와 구별하기 위해 1911년 재선 서양인 졸업간호부회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셰핑은 서양인 졸업간호부회를 조선간호부협회와 합하여 1923년 4월에 조선간호부회(현 대한간호협회)를 창립하고 회장으로 봉사하면서 조직을 정비해나갔다. 이는 전문직업인 단체로서의 기능보다는 일본에게 강탈당한 조국의 운명을 국제간호협회의회(ICN)에 가입함으로써 조선을 세계만방에 알리기 위함이었다[15]. 1925년부터 1934년까지 10년간 34호의 조선간호부회보를 국문과 영문으로 발간하였으며[21], 발간목적은 일반 민중의 질병과 병고를 없애는 등 그들의 건강향상을 위해 노력하며 간호수준을 향상시키고 간호사업의 이상을 향상시켜 나가기 위함이었다[18]. 1926년 4월 재선서양인 간호부회는 조선간호부회에 흡수 통합하였는데, 두 조직의 통합목적은 일국 일단체 가입을 원칙으로 하는 국제간호협회의(ICN) 가입을 위해서였다. 셰핑은 세브란스에서 간호계 선배인 설즈와 일하는 동안 돈독한 관계 속에서 조선간호부회가 국제간호협회의(ICN)가입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게 되었다. 이를 위해 간호교육 기준 재조정, 간호

잡지의 수준 향상, 간호교육과 실무를 위한 연합 정신을 강조하고 회원국의 단체조직에 요구하는 기준을 구비하는 등 온갖 노력을 다하였다[18,19]. 셰핑은 조선간호부회가 국제간호사협회의에 가입되기를 바라면서 1925년 맥스웰과 포프의 실용간호학(Practical Nursing)전서를 번역하였으며, 가드너 저 공중위생간호학, 1929년 다크와 스튜워트의 간호역사 개요(Short History of Nursing)를 조선어로 번역, 출판하였다[18]. 1925년에는 국제간호협회의(ICN)에 입회청원을 문의하였고 조선간호부회를 창립한 지 6년 만에 국제간호협회의(ICN)에 준회원으로 입회시켰으며 정회원이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다[2]. 1929년 조선간호부회는 국제간호협회의 회원가입을 신청하였고, 회장인 셰핑은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리는 국제간호협회의의 총회 참석을 위해 군산에서 간호사로 가르쳤던 제자 이효경과 조선간호부의 임원인 이금전 두 간호사를 조선인 대표자로 선정하였다. 이효경은 조선간호부회 부회장으로 회장인 셰핑을 도왔으며, 이금전의 캐나다 토론토대학 유학의 직접적 계기가 된 것은 조선간호부 대표로서 국제간호협회의 참석이었다. 이금전은 조선간호부회가 대한간호협회로 변경한 이후 1954년부터 1958년까지 대한간호협회장을 지냈는데[24], 이처럼 조선의 가난한 여성이 세계무대로 극상할 수 있기까지는 셰핑의 전적인 도움이었음을 알 수 있다. 1929년 6월 10일 서울을 떠나서 일본을 거쳐 6월 22일 밴쿠버에 도착하였으며, 몬트리올로 떠나기 전 셰핑은 조선간호부회에 다음과 같은 보고를 하였다.

내가 맡은 그 책임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노라. 내가 맡은 책임은 실패하지 않기를 바란다... 우리 회의 운명은 하나님께 있으나 우리가 마땅히 할 일을 우리가 다한 후에 하나님에게로 맡길 것이다. 이 중요한 책임을 지고 국제협회로 가는 저희들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라노라[27].

그러나 국제간호협회의(ICN) 회원국 가입이 일본의 방해로 실패로 돌아가자 셰핑을 비롯한 회원들의 좌절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조선간호부회가 ICN에 정회원으로 가입하는 것은 조선의 국위 선양과 민족의 독립을 앞당길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조선은 일본의 속국이므로 개별 독립국으로 가입할 수 없다는 일본의 주장인 것이다. 결국 뜻을 이루지 못했지만, 그는 거기서 포기하지 않았다. 정회원이 될 때까지 국가대표부(an Associate National Representative)를 거쳐야 했으므로 개인적으로 위원들을 만나 설득하는데 최선을 다했다.



이러한 일들은 조선의 간호를 세계로 넓히는 계기가 되었다. 1929년 쉔핑은 국제간호협회 참석차 생애 처음이자 마지막 안식년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그는 안식년조차 조선을 위해 기꺼이 바쳤다[16,18].

건강이 나빠서 많이 걸을 수도, 옛날처럼 도시와 마을을 방문할 수도 없습니다. 비록 육체적 힘은 없지만 안식년 기간 동안 제가 회복되어 돌아온다면 그 일을 더 하고 제시간의 대부분을 사용했던 일상적인 일을 줄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17 재인용].

3년이 지난 후 1932년 7월 그는 와병 중에서도 부축을 받아 가며 일본 동경에서 열린 국제 간호협회에 이를 동안 참석하여 일본 간호협회 앞에서 조선간호부회에 대해 호소를 하였다. 쉔핑이 그토록 소원했던 한국은 그가 서거한 지 15년이 지난 1949년 6월에야 비로소 ICN 정회원국이 되었다[18]. 그리고 1989년 5월 제19차 ICN 총회를 유치하는 쾌거를 이루었고, 2015년 6월 ICN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였다. 우리나라에서 간호사 교육이 시작된 지 113년이 되었고, 간호사가 탄생한지 110년이 되었으며, 조선간호부회(대한간호협회)가 창립된 지 93년이 되는 해를 맞이하여 한국간호는 명실 공히 세계선진 간호로 비상하게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대한간호협회의 전신이 되었던 조선간호부회의 초대회장인 쉔핑과 믿음의 선배들이 이루어 놓은 땀의 결실이며, 조선의 조선인을 위한 조선간호부회에 힘과 마음과 모든 소유와 삶의 모든 것을 바친 쉔핑의 희생과 헌신의 산실이라 말할 수 있겠다.

## 논 의

본 연구는 1880년 독일출생 간호선교사 쉔핑(1880~1934)의 한국을 위해 일생을 바친 헌신적 삶 가운데 간호학적 차원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미국 남장로교 선교부는 쉔핑의 선교업적을 복음전도, 의료선교, 교육선교 및 사회사업의 네가지 차원에서 섬겼다고 하였으며, Choi[8]와 Yim[10]은 이러한 네 가지 차원을 통합적으로 병행한 통전적 선교라고 밝혔다. 간호학에서 인간이해의 관점은 신체적, 심리사회적, 환경적, 영적 차원의 총체적 개념을 가지며, 각 영역들이 상호 통합적으로 반응하는 것으로 본다. 그리고 간호의 초점은 인간의 총체적 건강반응에 관심을 가지고 전인적 측면을 다루어야 하며 이는 전인간호로 귀결된다. 즉 전인간호는 인간의 총체적 건강관리를 추구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쉔핑 간호선교사의 사역

을 한국인을 위한 전인적 간호선교라고 말할 수 있겠다.

쉔핑은 1912년 2월부터 1934년 6월까지 22년 동안 그리스도의 박애정신으로 한국에 간호의 씨앗을 뿌리고 간 위대한 선구자이며, 전인간호의 역할모델이다. 그가 한국간호선교에 헌신하게 된 계기는 아마도 어릴 때 부모와의 이별, 가난한 환경에서의 외로운 삶, 8년 만에 재회한 어머니로부터의 버림받은 충격적인 사건 등이 자신의 깊은 내면의 세계에서 삶의 의미와 목적의 요구로 강렬하게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한 중에서 그가 받은 간호사 훈련교육과 성서 교육을 통해 인간의 생명에 대한 존중사상과 예수그리스도의 제자 된 실천적 삶에 대한 열망이 사명의식으로 구체화되었으리라 여겨진다. 쉔핑이 간호학을 공부하고 이어서 성경학을 공부한 것은 단지 삶의 수단이 아닌 인간의 육신과 영혼의 치유를 위한 사명감에서였다고 본다. 간호사로 야간 근무와 성서학 공부를 병행하면서 이탈리아 이민자 수용소와 유대계 결핵 환자 요양소에서 돌봄사역이 곧 한국민족을 위한 헌신적 돌봄의 기초가 되었다고 본다.

교육적 측면에서는 처음에 광주 제중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는 4년 동안 한국어와 한국풍속을 익혔으며, 한국간호에 대한 이해가 부족, 신분적 한계, 여성에 대한 사회적 억압과 어려운 교육환경을 접하면서 군산 구암예수병원과 서울 세브란스병원에서 병원간호와 간호사 양성에 주력하였다. 또한 쉔핑은 일본의 속국이 되어 무참히 짓밟혀 무단통치에 억눌려 있는 한국을 구하는 길은 오직 한국여성의 지위를 향상시켜, 3.1운동 등의 구국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한국여성을 간호사의 세계로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 조선간호부회를 국제간호협회(ICN)에 가입시키는 일이라고 믿었다. 불우하고 무지한 여성들을 위해 쉔핑의 좁은 침실에서 시작된 이일학교(3년제 보통과와 성경과)를 설립하여 가난한 학생들이 수예품을 만들어 미국에 수출하고, 누에재배와 직조 등으로 학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자립정신을 길러주었고, 시골에서 도시로 상경한 여자아이들이 유혹이나 기생으로 전락하는 것을 보고 이들을 데려다 교육하여 간호사로 육성하였다. 광주와 군산, 서울 세브란스병원을 오가며 간호사 양성과 병원간호 등 간호이론과 실무에 헌신하였으며 한국어에 능통하여 간호학 교과서들을 한글로 저술하고 또 영문 간호서적을 번역하여[18] 한국간호의 교육적 체계를 구축해나갔다. 20세기 초 한국 근대간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시기에 파견된 간호선교사 에드먼즈(Margaret J. Edmunds)에 의해 1903년 한국 최초의 근대 간호교육기관인 보구여관 간호원양성소가 설립되어 한국 여성들이 전문적인 간호사로 배출되기

시작하였고, 이곳에서 졸업한 간호사는 한국간호역사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에드먼즈는 세브란스병원 간호원 양성소를 설립한 실즈(Esther L. Shields)와 함께 한국 간호교육의 기틀을 마련하였다[28]. 셰핑 간호선교사는 1923년 조선간호부회(현 대한간호협회)를 출범시켜 회장으로 봉사하면서 간호교육과정의 표준화를 도입하기 위한 시도와 국제간호협의회(ICN)에 준회원으로 입회시켜 정회원이 되기 위한 준비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였다. 따라서 에드먼즈와 실즈는 초기 한국 간호교육의 기틀을 만들었으며 뒤이어 셰핑은 간호교육의 표준화와 한국간호를 세계간호로 성장하는 통로를 처음으로 마련하였던 점으로 볼 때 이들은 한국간호를 이끈 선구자적 삶을 살았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간호사역 측면에서 셰핑 간호선교사는 서양간호선교사와는 분명하게 차이가 있는 점을 볼 수 있었다. 한국에 와서 간호사로 일할 때부터 그의 주요 관심대상은 고아와 과부, 가난한 자와 병든 자였으며 그중에서도 가장 소외된 한센 환자였다. 얼굴과 손발의 형체마저 일그러져 상처와 피고름으로 엉켜 냄새나는 누더기 옷으로 오갈 데 없는 수많은 이들의 고통스런 신음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상처에 약을 바르고 싸매주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였다. 그가 군산 구암예수병원에서 일하면서 간호사 양성을 그토록 바랬던 것은 한센 환자를 돌보고자 하는 마음이 컸으며, 한센 환자에 대한 긍휼함과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가까운 이웃이 되어 헌신적으로 돌보았으며, 여수 애양원, 소록도 갯생원에는 그의 손자국이 묻어있음을 알 수 있다. 특별히 호남 지역과 제주도, 평양 등의 미개척 지역을 다니면서 전도사역과 함께 가정방문을 통하여 수많은 환자를 찾아 간호활동을 펼쳐나갔다. 셰핑은 병환 중에도 부축을 받아가면서 일본에서 열리는 국제간호협회에 참석하였고, 별세하기 일 년 전 중환상태에서도 제주도 모슬포에 가서 이주간의 신앙사경회와 이주간의 순회전도를 하였으며, 임종 전 4개월 동안의 외병 상태에서는 학생들을 자택에 불러 침상에서 가르친[26]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불굴의 의지로 노력하였다. 셰핑 간호선교사가 이 땅에서 펼치고 간 강인한 정신력과 실천적 소유자로서의 치열한 삶의 여정은 하나도 빠뜨릴 수 없는 소중한 유산이며 현대간호를 뛰어넘어 미래간호에까지 지속적으로 조망할 수 있어야 하겠다.

셰핑 간호선교사는 간호 외에도 이웃들의 실제적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이며, 통찰력과 강한 열정을 가지고 한민족의 영혼구원을 위하여 죽기까지 사명을 감당한 총체적 간호의 효시라고 말할 수 있겠다. 구한말 일제강점기 조선에서 활동한 간호선교사들은 우리나라에 근대간호를 도입하였고 그리스도

의 사랑의 정신을 가지고 헌신한 사람들[20]이었으며, 그 중에서도 셰핑은 한국을 위해 섬김에 삶의 목표를 둔 전인적 간호사역에 있어서 선각자라고 말할 수 있겠다. 한복차림으로 남자와 무신을 신고 한국 고아를 둘러업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한국 여성에게 진정한 삶의 의미와 정체성, 그리고 올바른 삶의 방식을 보여 주었으며, 그의 간호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해준 우리의 지도자 셰핑 간호선교사였다. 미국사람이면서 한국화 된 자로서 간호교육자, 행정가였으며, 독립운동가, 금주 금연운동, 절제 운동가였고, 고아의 어머니, 나환자의 어머니였다[18].

이와 같이 셰핑의 간호는 질병에 대한 육체적, 정신 사회적 및 영적 간호까지 전인적 간호를 철저히 완수한 것이다. 그는 영혼구원을 위해 예수그리스도의 사랑을 헌신의 삶으로 전해 주었고 1934년 6월 26일 54세를 일기로 광주 선교사 자택에서 일생을 마쳤다[11]. 22년 동안 이 땅에서 치열한 삶을 살아온 그는 시간과 정력과 온 마음과 영혼을 수많은 심령들의 무거운 짐을 덜어주고 한국인의 행복과 진정한 삶을 위해서 모두 소진하였다. 셰핑이 서거한 후 3년이 된 1937년 미국 남장로교 해외선교부는 위대한 선교사 7인중의 한 사람으로 선정하였으며, 한국에서 사역하는 여성 선교사 중에서 유일하게 뽑힌 인물이었다[29]. 셰핑의 마지막 삶의 과정동안 간호를 전담하며 임종을 지켜 본 변마지(M. Pritchard) 간호선교사에 의하면 셰핑은 자신의 생필품을 가난한 자들에게 모조리 주었고 집에는 옥수수 두 홉박에 남은 것이 없었으며, 심지어는 덮고 잘 이불까지도 내어주었다고 했다. 그리고 사후 자신의 시신은 의료연구를 위해 사용하도록 유언을 남기고 자신의 오장 육부까지 내어주고 떠났다[17]. 그의 장례식은 선교사들이 아닌 광주 지역 사회장으로 치러졌으며, 종파를 초월하고 민족을 초월한 대 행렬로 일본인들도 예복을 입고 참석하였다. 하얀 소복을 입은 이일학교 학생들이 운구를 맡았고 13명의 양팔과 수백 명의 걸인과 한센 환자들이 뒤를 따라 ‘어머니! 어머니!’를 부르며 비행기 소리 같은 통곡소리에 조객들은 눈물바다를 이루었다[2]함은 고통받는 인간을 불쌍히 여기는 셰핑 간호선교사의 사랑을 이루 해아리기가 어려울 정도이다. 셰핑 간호선교사는 한반도 도상에서 영토와 주권을 일본에게 강탈당하고 역사와 사상이 찢긴 체상처투성이가 된 조선을 싸매주었으며 신음하는 조선 여성들의 아픔을 감싸주면서 여성 자신들에게 정체성을 일깨워주었다. 간호를 ‘노예에 의하여 행해지는 천한 일’같은 것으로 여기는 당시의 편견에서 전인적인 돌봄 차원으로 바꾸었으며 진정한 삶의 의미와 가치를 심어주는 숭고한 사명임을 인식시켜 주었음을 엿볼 수 있다. 간호이념인 사랑과 헌신과 봉사를 삶으

로 보여주었고 나라가 위기에 처해있을 때 그의 간호사역은 조선인을 위한 전인적 간호이자 총체적 간호였다.

그가 한국 땅에 온지 벌써 한 세기가 지났다. 처녀간호사로 이역 만리타국에 와서 이 민족을 위하여 자신의 전부를 바치며 죽기까지 실천했던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모범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그가 세운 한일장신대학교(구 이일학교) 교정에 세워져있는 우리에게 남겨준 메시지는 ‘성공이 아니라 섬김’(Not Success but Service!)이다. 우리의 간호를 세계무대 중심에 올려놓기까지 헌신하면서 예수그리스도의 복음과 전인간호를 삶으로 전해준 엘리자베스 쉐핑은 이제 우리 곁을 떠났지만 장롱 속 깊이 묻혀있었던 그의 간호사역과 고귀한 정신을 들추어 내 계속해서 학습해야 하겠다. 끝으로 한국의 초기 지역사회간호에 기여한 서양 간호선교사의 간호활동에 대한 탐색적 차원의 연구가 부재한 시점에서 쉐핑 간호선교사에 대한 본 연구는 미래 한국간호를 발전시킬 수 있는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일제강점기에 내한하여 한국간호를 세계간호로 성장하도록 시작하는데 초석이 되었던 미국 남장로교 간호선교사인 엘리자베스 쉐핑(한국명: 서서평, 1880~1934년)의 전인적 간호와 교육업적을 기술한 연구이다. 한국에서의 사역기간은 22년 3개월이었다. 본 연구에서 쉐핑 간호선교사가 한국을 위한 전인적 간호의 선구자로서의 간호학적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간호학과 성경학을 공부한 후 간호선교의 훈련을 받고 한국에 왔다.

둘째, 일제강점기에 한국을 가난과 억압, 무지와 질병으로부터 헤어 나올 수 있도록 돌보았다.

셋째, 광주제중원, 군산 구암예수병원, 세브란스병원 및 지역사회에서 신체적, 심리 사회적, 영적 돌봄의 전인적 간호를 펼쳐나갔다.

넷째, 간호사양성과 간호교육을 발전시켰으며, 여성(성경과, 보통과)학교를 세워 국내 여성 지도자를 배출하였다.

다섯째, 일제시대 조선간호부회를 창립하고 초대회장으로 10년간 봉사하면서 국제간호협의회(ICN) 등록을 추진하였다. 이제 한국간호는 국제간호협의회(ICN)의 정회원국으로서 세계간호에 앞서서 나갈 수 있게 되었으니 이는 쉐핑 간호선교사의 한국여성 그리고 한국간호에 쏟은 헌신의 결과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한국인을 위해 헌신적 봉사를 다한 간호선교

사 쉐핑의 고귀한 삶과 전인적 돌봄을 조명하고 미래 한국간호의 새로운 도약을 이루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향후 한국에서 활동한 서양간호선교사의 간호업적에 대한 연구가 보다 심층적으로 이루어져서 간호선교사로서 경험을 분석하고 이를 통하여 한국간호선교의 나아갈 방향을 탐구하는 연구가 이루어질 것을 제언한다.

## REFERENCES

1. Korean Nurses Association. 100 years of Korean nurses association. Seoul: Korean Nurses Association; 2001. 315 p.
2. Baek CS. Let's meet in heaven-the glorious life of Miss Shepping, missionary nurse. Seoul: Korean Nurses Association; 1996. 255 p.
3. Han MY, Sohn SK. Study on foreign nurse missionaries in the late period of Joseon dynasty Japanese colonialism. Faith and Scholarship. 2014;19(3):213-250.
4. Yi GM, Kim HJ. Missionary public health nursing of Korea during Japanese colonial period. The Journal of Korean Community Nursing. 1999;10(2):455-466.
5. Lee CY, Cho YH, Ko JS, Kim JA. Foreign nurse missionaries starting Yonsei nursing school. Journal of Korean Academy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11;17(1):44-51.
6. Oak SD. Identities of early modern nursing and nursing education in Korea: Margaret J. Edmunds and the first nurses' training school in Korea. 1903-1908. The History and Christianity in Korea. 2012;36:185-227.
7. Lee SG. A History and prospect of Korean nursing missionary. Kosin Journal of Missiology. 2009;(5):229-251.
8. Choi YK. The holistic mission of Elizabeth J. Shepping, R.N., Southern Presbyterian (PCUS) woman missionary in Korea, 1912-1934. Korean Journal of Christian Studies. 2012;82:231-261.
9. Yim HM. The holistic mission strategy and kenotic spirituality of professional missionary Elisabeth J. Shepping. Theological Forum. 2013;(74):183-212.
10. Yim HM. Incarnational mission of missionary Miss Elisabeth J. Shepping, R.N., Mission and Theology. 2015;36:173-204.
11. Yu TJ. Miss Elisabeth Johanna Shepping as a missionary of the living faith. Theology and Society. 2013;27(2):217-272.
12. Cha SH. A study on the modern, professional, social mission work of Ms. Elisabeth Shepping (1880-1934). Discourse. 2014;17(4):29-57.
13. Kim UC. Understanding of Elizabeth J. Shepping's educational mission and its challenge to christian education. Theology and Society. 2015;29(2):45-90.
14. Hong SY. A magnificent life one nursing missionary has lived. In: Baek CS, editor. Let's meet in heaven-the Shepping, a missionary nurse who lived Jesus'life glorious life of Miss Shep-



- ping, missionary nurse. Seoul: Korean Nurses Association; 1996. p. 4-5.
15. Kim MI. Shepping, a missionary nurse who lived Jesus' life. In: Baek CS, editor. Let's meet in heaven-the Shepping, a missionary nurse who lived Jesus' life glorious life of Miss Shepping, missionary nurse. Seoul: Korean Nurses Association; 1996. 15 p.
16. Knox MB, Talmage EE. Miss E. J. Shepping-an appreciation. Korea Mission Field. 1934;30(10):218-219.
17. Yang CS. Happiness that served Chosun. love and life of Shepping. Seoul: Serving the People; 2012. 445 p.
18. Yang KJ. Not success, but service. Seoul: Serving the People; 2012. 284 p.
19. So HS. The effect of Shepping's medical nursing missionary work on Korean nursing education. in: So HS, Yang KJ, Yu TJ, Lee JL, Yim HM, editors. missionary Shepping's serving and life. Seoul: Kenosis; 2014. p. 127-168.
20. Oak SD. Sources of nursing history in Korea volume I: 1886-1911. Seoul: Korean Nurses Association; 2011. 857 p.
21. Shin MJ, Yi GM, Kim GM, An SH, Kang YS, Kang YH, et al. History of nursing. 6th ed. Seoul: Korean Nurses Association; 2013. 417 p.
22. Swinehart, LH. Elise Johanna Shepping-a missionary Deborah. In: Hallie PW, Sarah LVT, editors. Glorious living: Informal sketches of seven women missionaries of the presbyterian church. U.S. Atlanta(GA): Committee on Woman's Work, Presbyterian Church, U.S.; 1937. p. 147-184.
23. Minnutes of Twenty-Fourth annual meeting. Southern presbyterian mission in Korea. 1915;65-66. Cited by Choi YK. The holistic mission of Elizabeth J. Shepping, R.N., southern presbyterian (PCUS) woman missionary in Korea. Korean Journal of Christian Studies. 2012;82:231-261.
24. Yi GM. Historical review of Lee Keumjeon, a pioneer in community health nursing in Korea.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2013;24(1):74-86.
25. Shepping EJ. Sanitary work in Korea. The Missionary Survey. 1920 October; p. 640-642.
26. Baek CS. Glow province of zion Gwangju. Seoul: Gyoenumsa; 1999. 272 p.
27. Shepping EJ. Report of E. J. Shepping as a president of KNA, 1929 May. Cited by Baek CS. Let's meet in heaven-the glorious life of Miss Shepping, missionary nurse. Seoul: Korean Nurses Association; 1996. 255 p.
28. Lee BW. The management of nurses' training school of PO KU NYO KWAN (1903~1933). Korean Journal of Medicine History. 2011;20(2):355-393.
29. Yim HM. Elizabeth J. Shepping, live a life of Jesus. Seoul: Kenosis; 2015. 227 p.